

2
0
1
1
년

2011년 8월

교육학 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8
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존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공동체적인

휴머니즘

고미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에 나타난 공동체적인
휴머니즘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고미라

라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에 나타난 공동체적인 휴머니즘

Communal Humanism in *The Grapes of Wrath*
of John Steinbeck

2011년 0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고미라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에 나타난 공동체적인 휴머니즘

지도교수: 최 한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고미라

고미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정석 교수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기균 교수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한용 교수님 인

2011 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i>The Grapes of Wrath</i> 에 나타난 시대적 및 사상적 배경.....	6
III. 공동체적인 휴머니즘으로의 확산.....	15
A. Joad 일가의 공동체 의식의 과정.....	15
B. <i>The Grapes of Wrath</i> 주인공들의 공동체 의식의 전환.....	33
1. Ma Joad: 가족주의에서 박애주의.....	33
2. Rose of Sharon: 자기중심에서 형제애.....	43
3. Tom Joad: ‘나’에서 ‘우리’로의 공동체의식.....	47
4. Jim Casy: 신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	53
IV. 결론.....	59
참고 문헌.....	62

ABSTRACT

Communal Humanism in *The Grapes of Wrath* of John Steinbeck

Koh Mi-ra

Faculty Advisor: Prof. Choe Han-yong,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uss how the Communal Humanism in *The Grapes of Wrath* because Steinbeck's main idea in *The Grapes of Wrath* was humanism. *The Grapes of Wrath* was written by John Steinbeck and published in 1939. For this important literary work, Steinbeck was awarded the Pulitzer Prize an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The Grapes of Wrath* relates the social situation in 1930s America at a time, due to the Great Depression, many tenant farmers were exploited by land owners and

capitalists.

In *the The Grapes of Wrath*, Steinbeck describes the realities of the Dirty Thirties, the tyranny of industrial mechanism and the miserable lives of share croppers and laborers who had to leave for the new opportunities in California.

The story of *The Grapes of Wrath* is clear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Steinbeck introduces the drought, the Okies' dispossession from their land in Oklahoma and their preparation for departure. Second, he discusses their journey to the West. Third, he portrays their experiences in California and the flood. Also, this novel consists of sixteen interchapters and fourteen narrative chapters. The interchapters represent the hardships of the migrant Okies and their social backgrounds.

The Grapes of Wrath focuses on the Joads a poor family of sharecroppers who are driven from their home by drought, economic hardship, and changes in agriculture and former preacher Jim Casy. They set out for California's Central Valley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 Okies. During their journey to California, the Joads meet some hardships: Grandpa and Grandma Joad die, son Noah abandons the family, and Connie, Rose of Sharon's husband also leaves. Through these situations, The Joads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y learn to cooperate with other families like the Wilsons and the Wainwrights. When they arrive in California, they realize that it is not the Promised Land, but a place where hunger, cold and poverty live. In this nearly hopeless situation, they, however, never give up hope and continue on.

The novel's main characters are Ma Joad, Tom Joad, Rose of Sharon and Jim Casy. Ma Joad is a strong "citadel of the family". During the journey to California, through bearing various hardships, she grows spiritually. Jim Casy, a former preacher is a man who carried out a Jesus-type act of love by sacrificing himself for human beings. He tries to take upon himself the pain and agony in order to save the oppressed people and give up his life for them. This idea of Casy's philanthropic brotherhood moves Tom Joad's heart. Tom Joad gradually figures out Casy's acts and beliefs. Finally, he makes the decision to follow in Casy's foot steps in that he will work for poor and oppressed people everywhere. Rose of Sharon is the most self-centered in the family, but she also undergoes a dramatic change in her life. At the end of the novel, she breastfeeds a starving old man. This part represents the novel's most comprehensive thought, Steinbeck's strong humanistic sympathy for the lives of the tenant farmers. Through their suffering, the Joads change from being self-centered to having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cern for others in the same situation. Instead of thinking about themselves as "I", they learn to think of themselves as "We". At the end of the novel, the Joad family learn humanism.

In conclusion, Steinbeck illustrates how the spirit of community can work despite the dehumanizing situation of 1930 agricultural America in *The Grapes of Wrath*. He believed that the powerful force of the human spirit can overcome difficulties.

I. 서 론

20세기의 미국 현대 문학에서 시대의 삶과 정신을 반영했던 미국 작가들은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갔고 그들의 작품들만이 남아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케 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 주위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과거의 시대적 사회적 문제들을 거론 하면서 작가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귀감이 되는 삶의 지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John Ernst Steinbeck은 바로 이러한 작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아직도 우리 뇌리에 기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Steinbeck은 미국 California 주 Salinas에서 1902년 2월 27일, 아버지 John Ernst Steinbeck 3세와 어머니 Olive Hamilton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Steinbeck이 태어난 Monterey 지방 Salinas는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그가 태어날 무렵의 Salinas는 가장 미 개척된 곳이었기에 그에게 문학적인 상상력을 불러 넣기에 충분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Freeman Champney는 Steinbeck의 고향인 Salinas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e river, the highway, and the Southern Pacific Railroad chase each other down Salinas valley floor. The river itself, like most California rivers, is normally sandy, brush-choked, and nearly dry but carries a great volume of floodwater when the big rains come. At the lower end of the valley the flat bottomland is cut into great fields of lettuce, broccoli, alfalfa, sugar beets, and other truck crops. Cattle are raise on the slopes of the hill.¹⁾

1) Freeman Champney, *John Steinbeck, Californian, Steinbeck: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Murry Davi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pp. 18-19.

Of Mice and Men (1937), *In Dubious Battle* (1936), *The Grapes of Wrath*

(1939)등은 바로 California의 가장 중심적인 농업지대인 Salinas 계곡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Nelson Manfred Blake는 “Steinbeck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California를 배경으로 묘사한 소설들에게 발견 할 수 있다”²⁾라고 말한 바 있다. Steinbeck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며 특히 Malory 의 *Monte d'Arthur*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책으로 가져본 책이요, 아마도 성경과 함께 그의 창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고 Piter Lisca는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에서 언급하고 있다.³⁾ 그러나 그는 독서에만 몰두하지 않고 갖가지 활동에 뛰어들어 인생을 직접 체험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언제나 인간 상호간의 존엄과 상실되어 가는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글을 써왔다. 스타인벡은 “My whole work drive has been aimed at making people understand each other.”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소설이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 발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Steinbeck이 활발히 문학 활동을 시작하던 1930년대는 역사상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다.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공황은 도시의 황폐화와 더불어 농촌에서도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민들의 실업 상태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특히 농촌의 산업화는 소작인과 영세 농민들을 기계 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여 농토는 자본가에게 독점되고 농민들은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삶의 터전으로부터 강제 추방되었다. 이에 Steinbeck은 California의 농원에 눈을 돌린다. 1937년에 그와 그의 아내 Carol은 Detroit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Chicago를 경유하여

2) Nelson Manfred Blake, *Novelists' America: Fiction as History 1910-1940*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6), p. 133 참조.

3) Pi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8), p. 23 참조.

4) French Warren, *John Steinbeck* (Boston: Twayne Publishers, 1975), p. 92.

Oklahoma로 돌아가 66번 도로를 타고 서부로 달려 California까지 여행을 하였다. 그는 길옆의 천막들, 중고차 더미들, 도로변 간이식당들, 그리고 주유소들을 보았다. 또한 그는 66번 도로에서 떼를 지어 서부로 달리는 ‘Okies’라고 불린 이주 노동자에 대해 그들의 천막촌을 찾아다니며 상세하게 관찰했다. Steinbeck은 California에서 노동자들과 4주간을 보냈으며, 그들과 농장에서 일하고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하여 분노와 연민에 찬 기사를 썼으며, California의 농장주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였다.⁵⁾ 이러한 실제적 체험을 그는 *The Grapes of Wrath*에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는 비 목적론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초절주의적인 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The Grapes of Wrath*는 이러한 경제 공황 당시의 어둡고 참혹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져야 할 행복과 악영향에 대한 고발을 가난한 자들의 분노와 처절한 삶의 투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⁶⁾ 또한 이 작품은 비 목적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초절주의적인 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선 . 악을 다루기보다는 오직 살아가는 현상 그 자체에 비중을 두었으며,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였다. 초절주의 사상은 19C에 미국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사상 개혁 운동 보다는 감정과 직관을 앞세우고,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찬양하고, 전통과 관습의 모든 구속을 무시하며 자연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고자하는 사상으로 이는 곧 동양적인 사상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 3장에 신작로를 기어가는 땅거북이 나오고, 주인이 떠난 농가에 박쥐, 생쥐, 올빼미, 고양이등이 등장하고, 국도에서는 개가 자가용차에 치어 죽는 등의 다양한 동물들이 출현한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가 땅거북이다. 땅거북의 모험은 Joad 일가의 앞날을 견주어 보았을 때 많은

5) Pi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45 참조.

6) 김이철, 『John Steinbeck』 (서울: 형설 출판사, 1982), p. 132 참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very kid got a turtle some time or other. Nobody can’t keep a turtle though. They work at it and work at it, and at last one day they get out and away they go - off some wheres. It’s like me” 7)

이처럼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기를 쓰고 비비적거리서 마침내 밖으로 빠져 나와 제 갈 곳으로 가버린다는 이 대목은 거북이의 껍질 줄 모르는 생명력을 말해준다. 이는 곧 Joad 일가를 암시하며 Joad 일가에게 붙어 닥칠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앞으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Steinbeck의 단편집 *The Long Valley* 속에 “The Snake”, “The White Quail”, “Johnny Bear”와 같은 단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Of Mice and Men*, *Tortilla Flat* 에도 개, 닭, 돼지, 말, 파리,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Steinbeck이 언급하고 있는 짐승들은 여러 작가들 작품에서 소개되는 야수의 왕 사자나 알라스카의 눈벌판을 으르렁 대며 싸도는 굶주린 늑대도 아니다. 모두가 인간 사회 속에 섞여 사는 하찮은 짐승들이다.⁸⁾ Steinbeck이 동물들의 생리나 특성 등을 뚜렷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을 직접 관찰해 본 결과 동물들의 생활은 원시적이고 세속적인 자신의 생활과 다를 것이 없다는데 감명을 받았으며 다윈의 진화론의 생태학설에 관심을 가진 탓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절정기라는 역사적인 핸디캡을 안고 태어난 이 작품은 거센 여론의 빈축을 샀으며 몇몇 도서관에서는 비치할 수 없는 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많은 비평가들은 Steinbeck이 생물학적 입장에서 인간을 본능적, 육체적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점에 대

7) John Steinbeck,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Penguin Books, 2002), P. 21. 이후 이 텍스트의 인용은 GW 후에 쪽수만을 표기함.

8) 강봉식, 『스타인벡의 문학세계』 (서울: 고려 대학교출판부, 1978), pp. 167-69 참고.

해서 다분히 비판적인 논평을 가했다. Edmund Wilson은 Steinbeck의 작품에 있어 항구적 토대를 이루는 것은 “생물학적인 선입견”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하여 Steinbeck은 인간을 동물화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⁹⁾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1960년대 이후 많은 비평가들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The Grapes of Wrath*는 그 작품에 등장하는 Tom Joad를 포함한 Joad 가족 모두의 정신적인 성장을 세밀하게 그려낸 “완숙의 경지에 이른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다.¹⁰⁾ 이처럼 *The Grapes of Wrath*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재분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The Grapes of Wrath*는 Joad, Wilson, Wainwright 일가들의 모험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느끼는 인간애가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소설속의 상황에 독자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도하며 시대의 사회적인 제도와 압박을 보여주면서 분노와 동조를 갖게 해준다.

이 작품의 스토리는 모두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Oklahoma에서의 지독한 가뭄과 은행, 트랙터의 압박을 나타내고, 11장부터 California로의 여정이 시작되어 18장에서 끝난다. 그 후의 이야기는 California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또한 중간장은 홀수장과 짝수장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홀수장은 일반적인 사회 환경, 자연 환경, 지리적 조건을 전달하고 있으며 짝수장은 Joad 일가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 Steinbeck은 *The Grapes of Wrath*에서 고통과 좌절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당시의 시대 상황, 즉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빈농들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조명해보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

9) 최예자. 「John Steinbeck 의 비목적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1991, p. 30에서 재인용.

10) 조철원.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벡의 공동체 의식」, 『안과 밖』 (서울: 영미문학 연구회. 1998), p. 90에서 재인용.

력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Joad 일가를 중심으로 공동운명체 의식, 즉 개인의 이기심 보다는 집단 유기체적 협동심의 중요성을 반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휴머니즘의 중심사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Steinbeck이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대리인들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의 휴머니즘 사상에 접근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논문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및 사상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이해를 돕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자서전적 요소와 시대적 배경이 휴머니즘사상으로 발전하게 주제범위가 어떻게 철학적 사상으로 확대되는가를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 예증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작가의 휴머니즘 사상의 핵심을 재강조하려고 한다.

II. *The Grapes of Wrath* 에 나타난 시대적 및 사상적 배경

산업화, 도시화, 이민화로 특징짓는 1930년대 미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상실하고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이에 따른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격동의 사회였다. 특히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물질적 번영과 향락주의, 그리고 경제적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미국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으로는 도시농촌간의 격차와 해외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계급적 갈등, 인종차별, 성적 억압 등이 사회 도처에 만연하였다. 경제 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의 미국의 국부는 3,610억불로 1900년의 4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약 30년 동안에 국부를 400%까지 끌어 올렸던 미국에도 공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1932년에는 하루에 40개의 은행은 파산했고, 1,400만 명이 넘는 실업

노동자가 길거리를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시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으로 사적 이윤과 자유기업 제도를 확립시켜 은행의 전면적 파산을 막을 수 있었고, 그의 정책의 3대 기본요소였던 3R(Relief, Recovery, Reform) 정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면화, 연초, 생산자에게 분배하는 농업조정법도 1933년에 입법 실시되어 역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¹¹⁾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농업구제책의 혜택은 주로 대지주들에게 돌아갔고 소작인들은 그런 법률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가야만 했으며, 생산억제에서 오는 역효과로 실직과 저임금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불황속에서 제기하려는 농민들은 지주위주의 태두리 안에서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 버렸고, 그 결과 황량한 남부의 농촌은 북부의 기계 산업의 지배를 받게 된다. 농토는 부를 축적한 지주들에게 독점되어 가난한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고향에 머물 수가 없었다. 보금자리에서 내쫓개쳐진 그들은 갈 곳 없는 실항농민이 되어 부를 향한 이동이 아닌 떠돌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1914-1918) 이후 미국 사회는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와 더불어 산업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의 병폐가 심각한 대 공황으로 확대 되었고, 더불어 기계론적 태도와 황금만능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게 되었다. 또한 많은 은행과 공장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고,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난과 고통이 만연하여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은 더해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경제 체제 아래 Steinbeck의 작품은 비참한 시대상의 대 공황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e Grapes of Wrath*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시기에 미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쓰여 졌다. 당시 부를 축적한 일부 지도층들은 혜택을 누렸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없던 서민이나 농민들은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암

11) 현대 영미 소설 학회, 『20세기 미국 소설의 이해 I』 (서울: 신아사, 2003), p. 43.

울한 하루하루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전역에 몰아친 대공황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1933년부터 미국 중부에 밀어닥친 3년여에 걸친 Dust Bowl이라는 모래 폭풍으로, 그렇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오던 수천만의 농민들은 더욱더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당시의 참담한 사회상을 Roosevelt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알 수 있다.

Value have shrunken to fantastic levels; Taxes have risen; Our ability to pay has fallen—farmers find no markets for their produce; the savings of many years in thousands of families are gone.¹²⁾

또한 Steinbeck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ey arose in the dark no more to hear the sleepy birds' first chittering, and the morning wind around the house while they waited for the first light to go out to the dear acres. (GW 231)

곡식은 다 달러로 헤아려졌으며 땅은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값이 매겨졌고 곡물은 심기도 전에 매매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돈과 더불어 타락해져갔고 그들은 이미 농부가 아닌 곡물 상인들이 되어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팔아 버리는 작은 제조업자들이 되고 말았다. 사업가들은 농장을 소유하여 농사는 산업이 되고 말았다. 소수 자본가들은 그들의 사적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강요하여 그들은 적은 임금에도 배고픔과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이주민들

12) 한국영어영문학회편, 『영·미작품론』 (서울: 신구문화사, 1981), p. 409.

은 국도 위에 물결쳤고, 그들의 눈동자는 기아와 궁핍으로 인해 메말라 갔다. 한 사람 분량의 일이 있으면 열 사람이 덤벼들었다. 그리고 형편없는 품삯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If that fella'll work for thirty cents, I'll work for twenty-five. If he'll take twenty -five, I'll do it for twenty. No, me, I'm hungry. I'll work for fifteen. I'll work for food. The kids, You ought to see them. Little boils, like, comin' out, an' they can't run aroun'. Give' em some windfall fruit, an' they bloated up. Me. I'll work for a little piece of meat. (GW 283)

품삯은 자꾸만 내려가는데 물가는 변동이 없으니 대지주들은 좋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더 많은 구인 광고 쪽지를 뿌렸다. 이런 과정에서 대 지주들은 이득을 추구하며 회사들과 새로운 묘안을 궁리해 나가면서 더욱더 자신들의 부를 축척 해 나갔다. 이는 노동자들은 많아 생산되는 물품은 많은 반면에 생산노동 대중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물건은 쌓여 넘쳐도 팔리지 않는 공황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지속된 환경에 따라 중소자본은 몰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독점의 성격을 갖는 대자본이 형성되게 된다. 한편 이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상품을 굶주린 대중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커녕 불 질러 태워버리고 썩혀 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Steinbeck은 수확의 때에 포도열매가 소담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풍요의 상징이 아닌 가난한 자들의 눈에 분노가 쌓이고 커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watch the mountains of oranges slop down to a putrefying ooze; and in the eyes of the people there is the failure; and in the eyes of the hungry there is

a growing wrath. In the souls of the people the grapes of wrath are filling and growing heavy, growing heavy for the vintage. (*GW* 349)

또한, 대지주들은 행여나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걱정으로 각종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된다.

The great owners formed associations for protection an they met to discuss ways to intimidate, to kill, to gas. And always they were in fear of a principal - three hundred thousand - if they ever move under a leader - the end. (*GW* 238)

이처럼,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을 제외한 다수의 대중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공항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표현 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피폐한 검은 그림자로 얼룩진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질위주의 사회 풍조와 그에 따른 인간성의 타락이 자영농민을 농토에서 몰아내고 수단이야 어떻든 물질적 성공을 거두면 그만 이라는 왜곡된 이기심을 낳았다. 또한, 지나친 물질 소유욕은 인간과 대지의 단절감을 가져왔고 인간을 기계문명의 노예로 만들었다.

트랙터들이 길을 넘어 들판으로 들어왔고 벌레같이 생긴 커다란 기계가 땅을 굴러 오면서 흙을 파헤치고는 흙을 긁어모았다. 디젤 트랙터들은 멎어 있을 때에는 텅텅거리고 움직일 때에는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

Snub-nosed monsters, raising the dust and sticking their snouts into it, straight down the country, across the country, through fences, through dooryards, in and out of gullies in straight lines. They did not run on the

ground, but on their own roadbeds. They ignored hills and gulches, water courses, fences, houses. (GW 35)

더욱이 황폐해진 농토의 모습은 Oklahoma 농민들에게 닥친 비극적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Then it was June, and the sun shone more fiercely. The brown lines on the corn leaves widened and moved in on the central ribs. The weeds frayed and edged back toward their roots. The air was thin and the sky more pale; and every day the earth paled. (GW 1)

이 장면에서도 절실히 보여주듯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자연 앞에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두커니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에 초라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을 등지고, 난민이 되어 버린 그들은 희망의 빛을 찾아 힘든 여정을 찾아 나선다. Joad 일가 또한 가뭄과 모래한파에 시달렸으며, 지주들의 횡포에 못 이겨 트럭으로 개조한 중고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 일자리가 있다는 California로 향한다.

Of the Grapes of Wrath(1939) follows the Joad family victims of the disastrous Oklahoma “dust bowl” erosion that turned the subsistence farmers to vagrants on an epic journey to California, where they become involved in the violence of a strike among the fruit pickers.¹³⁾

13) Scualley Bradley, *et al.* eds.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Vol. 2.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1967), p. 1507.

California로 고생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Grandpa와 Grandma는 죽게 되고, Noah와 Connie Rivers는 이주 행렬에서 이탈했으며, 나머지 가족 즉, Pa Joad, Ma Joad, Uncle John, Tom Joad, Al, Rose of Sharon, Ruthie, Win-field, 그리고 함께 동행한 Jim Casy는 목적지에 힘들게 도착한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온 California는 상상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 아니었다. Joad 일가는 노동자끼리 일자리를 얻기 위한 다툼, 지배계급의 지속적인 노동력 착취, 그로 발생하는 사회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대홍수’라는 또 다른 재해를 맞아 한 번 더 짓밟히고 만다. Steinbeck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And the rain pattered relentlessly down, and the streams broke their banks and spread out over the country. Huddled under sheds, lying in wet hay, the hunger and the fear bred anger. Then boys went out, not to beg, but to steal; and men went out weakly, to try to steal. (GW 434)

사정없이 퍼 붓는 비로인해 이주민들은 배고픔에 굶주리고 병까지 얻어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들의 마음은 인간 이하의 본능으로 자신들의 삶을 구걸하고 있었다. 비가 새는 헛간 속 젖은 풀 위에서 패륜으로 숨을 헐떡이는 여자가 어린 애를 낳았고 늙은이들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죽어 갔다. 이와 같이 홍수 또한 가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고립시켜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면서 시대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The Grapes of Wrath*에서는 Joad 일가의 상황을 적절히 ‘땅거북’과 비유하면서 Joad 일가가 온갖 고초와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리라는 의미를 거북을 통해 불굴의 자세를 잘 묘사하고 있다.

As the embankment grew steeper and steeper, the more frantic were the efforts of the land turtle. Pushing hind legs strained and slipped, boosting the shell along, and the horny head protruded as far as the neck could stretch. Little by little the shell slid up the embankment until at last a parapet cut straight across its line of march, the shoulder of the road, a concrete wall four inches high. As though they worked independently the hind legs pushed the shell against the wall. (GW 15)

거북이는 횡단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불개미와 고양이의 공격 등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4인치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횡단하여 꾸준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Steinbeck은 끊임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면서도 계속 전진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인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 거북이의 전진은 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Steinbeck의 인생관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Lisc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indomitable life force which drives the turtle drives the Joads, and in the same direction-southwest. As the turtle picks up seeds in its shell and drops them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so the Joads pick up life and take it across the country to California. As the turtle survives the truck's attempt to smash it on the highway and as it crushes the red ant which runs into its shell, so the Joads endure the perils of their journey.¹⁴⁾

14) Pi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59.

자연의 재해와 사회, 경제적 격동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실향민들은 미지의 낙원인 California로 향한다. 그러나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도착한 California는 구원과 희망의 땅이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실낙원 이었다. 이에 실향민과 이주민들은 다시 한 번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그러나 Steinbeck은 비참한 이농민들을 단순히 험악한 시대에 놓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에 부딪히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모습으로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인간애의 공동체의식인 휴머니즘을 통해 낙원이상의 보금자리로 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초반에 등장인물들은 유약한 정신으로 본능적, 육체적 힘으로만 살아가는 경향이 짙었으나 작품의 후반에 갈수록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강하고 완전한 존재들로 발전하게 된다.

Steinbeck은 *The Grapes of Wrath* 에서 Joad 일가의 강인하고 건강한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나’ 가 아닌 ‘우리’를 강조한다. 그는 그들에게 자연적 재해 와 사회적 분노를 줌으로써 그것들을 극복 하고자 하는 불굴의 힘을 부여 하였다. 여기서 생명에 관한 Steinbeck의 휴머니즘적인 인생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기본적인 인생관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193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격동으로 인해 곤경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미국인들이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처럼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는 인간의 내면을 자극 시키면서 계몽적인 사상을 발휘하도록 주도하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을 심어주는 소설이라고 하겠다.

III. 공동체적인 휴머니즘으로의 확산

A. Joad 일가의 공동체 의식의 과정

Oklahoma의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Joad 일가는 자연적인 재해와 사회적인 병폐가 오기 전에는 그들만의 작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끈이며 안식처였던 자연은 그들에게 가뭄과 매서운 모래 폭풍을 주면서 삶의 고통과 시련을 주었다. 먼지가 도로에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밭 가장자리의 잡초 위에 내려앉았고 조금 떨어진 밭 위까지 훑날려 오기도 했다. 먼지 때문에 하늘색은 점점 탁해지고, 바람이 대지 위를 훑어가듯 불어제쳐 먼지와 토사 가루를 마구 훑날렸다. 집집마다 창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문틈에 형겔쪼가리를 틀어막았지만, 어디로 들어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새어들어 마치 꽃가루처럼 의자와 탁자와 접시 위에 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은행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Joad 일가도 마찬가지였다. 지주와 지주의 대리인들은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소작인들은 그저 쭈그리고 앉아 주워온 나뭇가지로 땅 바닥에 낙서를 할 뿐 다른 방법이 없었다.

The tenant men stood beside the cars for a while, and then squatted on their hams and found sticks with which to mark the dust. (GW 31)

트랙터가 들이닥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흙은 어마어마한 성능과 우렁찬 기통의 소음을 자랑하는 기계에 어떠한 힘도 없이 무력 할 뿐이었다. 트랙터 뒤에

는 삽날이 번뜩이면서 굴렀고, 흙을 두들겨 켜다.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것이었다. 파헤쳐진 흙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면 두 번째 줄의 삽날이 받아 흙을 고르면서 왼쪽으로 보냈다. 삽날은 흙에 갈려서 번쩍번쩍 광이 났다.

Behind the harrows, the long seeders—twelve curved iron penes erected in the foundry, orgasms set by gears, raping methodically, raping without passion. (GW 36)

대항할 힘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그들은 도덕성에 무감각한 은행과 자본가들에 의해서 눈물과 분노를 참아야 했으며 차가운 기계 앞에서는 무너져야만 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인 생산 없이 긴 방랑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Joad 일가도 남서쪽 방향인 California로 향한 끝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비록 강제적인 힘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게 되지만 이들에겐 이것이 새로운 집단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California에서 뿌린 전단지들의 선전만을 믿고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Grandpa는 Muley Graves처럼 고향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겠다며 거부한다. Muley 지주들의 횡포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뒤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서부로 보내고 혼자서 고향을 지키며 지주들과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 I'd tell myself, 'I'm lookin' after things so when all the folks come back it'll be all right.' But I knowed that wan't true. There ain't nothin' to look after. The folks ain't never comin' back. I'm jus' wanderin' aroun' like a damn ol' graveyard ghos'.” (GW 51)

이에 Casy는 “사람은 살던 곳에 정이 드는 법이잖나? 떠나기도 어려운 일이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점점 고정되어 가니까 그걸 버린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네”(GW 51)라고 말하며 Muley가 떠나고 싶어도 떠 날수 없는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다. Muley는 고집이 센 친구이나 외부와의 단절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Joad 일가와 달리 Muley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가족은 Grandpa가 진통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든 사이 그를 트럭에 태우고 출발 한다. Joad 일가는 모포와 취사도구만을 그나마 고장 난 낡은 자동차에 싣고 2천 마일을 가기위해 산맥을 넘고 사막을 횡단했다. 엔진의 덜커덩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는 실향 농민이 되어버린 그들의 불안전한 삶과 비참한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했다.

The engine was noisy, full of little clashings, and the brake rods banged. There was a wooden creaking from the wheels, and a thin jet of steam escaped through a hole in the top of the radiator cap. The truck pulled a high whirling column of res dust behind it. (GW 98)

가족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고물트럭은 가족들을 하나로 연결 짓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집도 들판도 죽었지만 이 트럭만은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는 물건이었고 살아있는 원리였다. 고물이 다 된 허드슨, 구부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라디에이터 스크린, 먼지에 뒤범벅이 되어 달라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들, 허브 캡이 없어지고 그 대신 붙어있는 빨간 먼지 가루로 된 캡. 보잘것 없는 트럭에 불과하지만 이거야말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노변 같은 곳이었고 가족들의 새로운 거실이였다.

이제 Joad 일가는 거북이 그의 등껍질을 끌고 끝없는 길을 가듯이 그들의 집과도 같은 고물 트럭의 음산한 소리와 함께 66번 국도를 따라 방랑의 길에 나선다. 고향을 떠나 California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은 순탄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애견이 처참한 광경을 이루며 노상에서 천천히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에서 뿌리 뽑혀야 했던 노인들은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Casy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고향을 떠났을 때 이미 예견되었다고 말을 한다. 고향 땅은 바로 할아버지 자신이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Grampa, his life was over an’ he knowed it. An’ Grampa didn’ die tonight. He died the minute you took i’m off the place.” “You sure a that?” Pa cried. “Why, no. Oh, he was breathin’,” Casy went on, “but he was dead. He was that place, an’ he knowed it.” Uncle John said, “Did you know he was a-dyin’?” “Yeah,” said Casy. “I knowed it.” (GW 146)

Grandpa와 Grandma는 길에서 죽어 극빈자로 매장되어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히게 된다. Grandpa는 Joad 일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성미가 사나워 곧잘 싸우고 다투고 더러운 욕도 마구 해댔다. Grandma 또한 성미가 고약했으며 종교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지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Grandpa와 Grandma는 자신들의 고향을 등지고 떠났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To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y was too old. They wouldn’t of saw nothin’ that’ here. Grampa would a been a -seein’ the Injuns an’ the prairie country when he was a young fella. An’

Granma would a remembered an' seen the first home she lived in. They was too ol'" (GW 230)

가족은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하여 Noah는 강둑을 따라 걸어 가버리고, Connie Rivers도 Rose of Sharon을 버리고 달아나버린다.

Noah는 맏아들로써 불구자 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성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쳐다 볼 정도로 평생 화를 내 본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고독해 하지 않았다. Joad 일가가 서쪽으로 향하는 중 Noah는 물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가족들과의 여정을 끝내려 한다. 톰이 설득 시켜 보지만 노아는 "소용없어" 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I can't he'p it. I can't leave this here water." Noah's wide-set eyes were half closed." You know how it is, Tom. You know how the folks are nice to me. But they don't really care for me. I know how I am. I know they're sorry. but - Well , I ain't a-goin'. You tell Ma-Tom." (GW 208)

Noah는 현실에 만족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비운다. Rose of Sharon을 떠난 Connie는 텍사스의 출신으로 몸이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날카롭게 생긴 청년이었다. 착실하고 부지런했으며 좋은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Rose of Sharon의 임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겁이 나기도 했다. Connie와 Rose of Sharon은 가족의 어려움 보다는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며 생각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러나 California Hooverville에 도착 했을 때 Connie는 심적인 변화를 느낀다.

“If I’d knowed it would be like this I wouldn’t of came. I’d a studied nights’bout tractors back home an’ got me a three-dollar job. Fella can live awful nice on three dollars a day, an’ go to the pitcher show ever’ night, too.”
(GW 252)

Connie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도착한 California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 했으며 Rose of Sharon의 “우리 애를 낳기 전까지는 우리 집을 마련 해야 해요. 아 이기를 천막 같은 데에서 낳을 수는 없어요.”(GW 252) 라는 말이 19살의 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Joad 일가를 떠나 Rose of Sharon에게 큰 아픔을 안겨 준다. 이렇듯 가족집단의 붕괴는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오지만 그 상처의 파편들은 보다 커다란 집단으로 뭉쳐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제 그들은 California로 향하는 실향농민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서서히 가족보다 큰 집단의 일원이 되어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된다. Joad 일가는 길가 오두막집에서 가솔린펌프 두 개, 수도꼭지와 호스로 가솔린을 담아주고 수돗물을 대주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고장 난 낡은 여행용 자동차를 하이웨이 아래 도랑에 세우게 된 Ivy Wilson과 그의 아내 Sairy Wilson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몸이 아픈 할아버지를 자기들의 텐트로 모시도록 하여 Joad 일가에게 도움을 베풀어준다. 할아버지는 Wilson 부부 텐트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이불에 싸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의 죽음은 두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서로의 슬픔을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뜨거운 결속력을 만든다. 지금까지 가족 중심적 사고에서 머물렀던 Joad 일가는 Wilson 부부를 만나 California로 무사히 가겠다는 생존방식과 협동 정신을 강화시키면서 ‘나’에서 ‘우리’로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서부로 가는 이주민들은 한 가족이 캠프를 치면 또 다른 가족이 캠프를

치고 마침내 이주민들 20세대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들은 모두 처지가 비슷하여 협동과 단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모두가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동시에 희망과 꿈을 향해 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매일 밤 일시적인 작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관습, 행동양식, 삶의 규칙을 개발하며 천막 속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즉 이들은 이러한 형성 속에서 공동체적인 가족 양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같이 모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을 나누었고 먹을 것을 꿈꾸었고 희망찬 일들을 같이 나누었다.

In the evening a strange thing happened: the twenty families became one family, the children were the children of all. The loss of home became one loss, and the golden time in the West was one dream. And it might be that a sick child threw despair into the hearts of twenty families, of a hundred people; that a birth there in a tent kept a hundred people quiet and awestruck through the night and filled a hundred people with the birth-joy in the morning. (GW 193)

이윽고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천막촌 이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며 새롭게 창조될 작은 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준다. Joad 일가는 이곳에서 집단의 자율적인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도 자유를 느낀다. 즉 자율적인 공동체적인 삶,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이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신세계에 대한 기대와 꿈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Joad 일가가 천막촌에서 사막 횡단을 앞두고 머무르고 있을 때 쯤 한 명의 경찰관을 만나게 된다. 그는 Joad 일가가 Oklahoma에서 왔다는 말에 머무를 수 없다며 어머니와 실랑이가 오고간다. 이때 어머니는 프라이팬을 들고 경찰은 권총집을 풀었다.

The man took two steps backward. “Well, you ain’t in your country now. You’re in California, an’ we don’t want you goddamn Okies settlin’ down. “ Ma’s advance stopped. She looked puzzled. ‘Okies?’ She said softly. Okies.” “Yeah, Okies! An’ if you’re here when I come tomorra, I’ll run ya in.” (GW 214)

싸움의 이유는 Joad 일가가 ‘Okies’라는 점이다. Ma는 공허감에 사로잡힌다. California의 가진 자들은 Oklahoma의 출신들이 사납고 잘 싸우기 때문에 싫어했고 노동자들조차도 그들이 더 적은 품값으로 일하고 일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싫어했다. 그래서 이들을 낮추어 ‘Okies’라고 부르게 되었다. 버드나무 사이로 걸어 나오는 두 남자와 Tom의 만남에서도 ‘Okies’라는 단어가 나온다.

“Well, Okie use’ ta mean you was from Oklahoma. Now it means you’re a dirty son-of-a-bitch. Okie means you’re scum. Don’t mean nothing itself, it’s the way they say it. But I can’t tell you nothin’. You got to go there.” (GW 206)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운명,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생활과 ‘Okies’라는 별명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뿌연 안개로 그들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Joad 일가는 Grandma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정을 하려는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Sairy의 병상 때문에 Wilson 부부는 머무르게 되고 Joad 일가와 Wilson 부부는 마침내 헤어지게 된다. 이들의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서로 공동체적인 사상을 형성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었으며 Joad 일가 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Joad 일가는 Wilson 부부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돈과 돼지고기와 감자를 준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인간애의 확대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Pa took out his purse and dug two crushed bills from it. He went to Wilson and held them pt. “We want you should take this, an” - he pointed to the pork and potatoes - “an’ that.” Wilson hung his head and shook it sharply. “I ain’t a gonna do it,” he said. “You ain’t got much.” “Got enough to get there,” said Pa. “We ain’t left it all. We’ll have work right off.” (GW 220)

이주민들의 집단 천막촌으로 변해버린 66번 도로는 Joad 일가를 약속의 땅 California로 인도한다. 66번 도로는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 California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안식처였으며 노력하면 누구나 물질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미국적 꿈의 허상과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개척 정신의 허구를 잘 드러내고 있다.¹⁵⁾ 그들이 아침 햇살을 뚫고 Tehachapi 산간지대를 통과하고 나니 해가 그들의 뒷덜미 위에 와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눈 아래에 펼쳐진 골짜기를 보았다. AI은 브레이크를 밟고 길 한가운데에 차를 멈추었다. 포도밭, 과수원, 널따랗고 편평한 골짜기,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들줄어 지어 늘어서 있고 농가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멀리 도시의 시가지가 보이고 과수원 지대에는 작은 마을들이 어우러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골짜기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Pa는 “정말 이런 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GW 227) 라고 탄성을 지른다. 죽음과 해체라는 과정 끝에 도착한 California는 그들을 희망으로 들뜨게 했으며 한참동안 환희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낙원이라 생각 했던 California는 외형적인 낙원이었다. 미국사람들은 멕시코에 속해 있던 California의 땅을 빼앗아 소유를 하는 지주가 되었다. 이에 토지를 잃은 Kansas, Oklahoma, Texas, New

15) 정정숙, 「존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휴머니즘과 아메리칸 드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 43에서 재인용.

Mexico, Nevada, Arkansas 등의 사람들은 각처에서 밀려나야만 했다. 차에 가득 실은 짐 꾸러미, 집 없고 굶주린 2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깔렸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불안하게 움직였다. 어떠한 일이라도 먹을 것만 주면 다하려 했다.

And while the Californians wanted many things, accumulation, social success, amusement, luxury, and a curious banking security, the new barbarians wanted only two things - land and food; and to them the two were one. (GW 233)

California는 방치된 땅일지라도 이주민들에게 경작이 허용되지 않는 불모의 장소이며 탐욕은 더 많은 탐욕을 낳아서 약육강식의 형태를 갖춘 장소였다. 일손이 필요한 큰 농장은 많았지만 일꾼의 수가 늘어 품값은 내려갔고 그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노동력이 남아도니 자본가 대지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깎아내려 모든 식구가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다. 캘리포니아 토지는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그곳 이주민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구름처럼 서부에 흘러 들어온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에도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열악한 환경과 영양실조, 질병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뿐만 아니라 California의 주민들은 서부로 몰려온 사람들을 ‘Okies’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경계하였으며,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보안관들을 고용하고 총과 법으로 이주자들을 통제하였다. ‘약속의 땅’은 순식간에 지배계급의 악랄한 노동력 착취와 빈곤의 악순환이 만연한 또 다른 ‘지옥의 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Joad 일가도 California에 도착한 후 먼저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일자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Okies’ 취급을 받으며 유랑민 신세를 면치 못한다. Joad 일가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천막촌을 발견하고 머무를 준비를 한

다. 그 곳은 길 잃은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고 음산한 천막, 너저분한 세간들, 고물 차량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광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Joad 일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다.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임금은 처절할 만큼 작았다.

“S’pose they’s a hunderd men wants that job. S’pose them men got kids, an’ them kids is hungry. S’pose a lousy dime’ll buy a box a mush for them kids. S’pose a nickel, ll buy at leas’ somepin for them kids. An’ you got a hunderd men. Jus’ offer’em a nickel – why, they’ll kill each other fightin’ for that nickel.
(GW 245)

이러한 현실 속에서 Joad 일가는 또 하나의 장애에 부딪힌다. Hooverville 수용소에서 Floyd와 노동자를 모집하러 온 청부업자의 싸움에 Tom이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Casy는 Floyd와 Tom을 보안관으로부터 구해주고 대신 감옥에 끌려간다. Casy는 Joad 일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Casy grinned at him. “Somebody got to take the blame. I got no kids. They’ll jus’ put me in jail, an’ I ain’t doin’ nothin’ but set aroun’.” (GW 265-66)

Tom 대신 California의 한 감옥에 송치된 Casy는 Joad 일가에게 형제애 이상의 것을 남긴다. Joad 일가는 시골길을 따라 차를 달려서 Weedpatch Camp에 아주 늦게 도착한다. 이곳은 국영 야영지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삶으로 자치 법규에 의해서 운영된 곳으로 Steinbeck이 제시하는 현실적 이상향의 모델로서 Joad 일가에게 “민주적 절차”를 배우게 하기 위한 작가의 계산

된 장소이다.¹⁶⁾ 이곳은 위생반이라는 조직이 다섯 개 있으며, 각 반마다 중앙 위원 한사람 뽑는다. 그 위원회가 규칙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다. 그들은 투표에 의해 위원을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보안관이 없으며 중앙 위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규칙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Weedpatch Camp는 인간을 인간답게 맞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했다. 화장실과 샤워와 세탁조 같은 것은 Ma Joad로 하여금 흐느낌에 가까운 탄성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친절한 사람들 틈에서 그들이 묻어 두었던 일을 떠올린다. Grandpa, Grandma의 죽음 그리고 강을 따라 어디론가 가버린 Noah 와 Connie. 전에는 그런 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올라 그들로 하여금 가족 해체의 두려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든다. Tom은 바로 작년에 홍수가 지나고 죽을 고생을 다해 이곳 Weedpatch Camp를 찾은 Wallace 부자와 마주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깎이면서까지 Joad 부자에게 일감을 나누어 준다. Tom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인정이 조금은 의아하지만 곧 끈끈한 결속력 같은 것을 느낀다.

“You got work now,” Tom suggested. “Yeah, but it ain’t gonna las’ long. Workin’ for a nice fella. Got a little place. Works ’longside of us. But, hell - it ain’t gonna las’ no time.” Tom said, “Why in hell you gonna git me on? I’ll make it shorter. What you cuttin’ your own throat for?” Timothy shook his head slowly. “I dunno. Got no sense, I guess. We figgered to get us each a hat. Can’t do it, I guess. There’s the place, off to the right there. Nice job, too. Gettin’ thirty cents an hour. Nice frien’ly fella to work for.” (GW 293-94)

16) Steinbeck, *Working days: The Journals of The Grapes of Wrath, 1938-1941*, Robert Demott ed. (New York: Viking Press, 1989), p. 64.

농업 조합은 서부 은행에서 운영하게 되어 이제 임금은 25센트가 되었다. 그러나 궁핍한 현실 속에서 적은 임금이라도 일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감사 했다. 일을 하는 도중 주인으로부터 토요일마다 열리는 무도회장에서 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밖의 소리를 듣는다.

“Well, the Association don’t like the government camps. Can’t get a deputy in there. The people make their own laws, I hear, and you can’t arrest a man without a warrant. Now if there was a big fight and maybe shooting—a bunch of deputies could go in and clean out the camp.” (GW 296)

댄스 장에는 현악 밴드가 연습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열을 올리며 흥분하고 있었다. 토요일 밤마다 열리는 댄스파티 날이다. 이날 그들은 공동체적인 협동심을 발휘하여 협회의 모략을 저지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Joad 일가는 공동체에서 협동심의 정의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화의 향의를 하게 된다.

Weedpatch Camp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감 있는 삶이었으나 Joad 일가에게는 가난의 연속이었다. 이에 그들은 복숭아 농장인 Hooper ranch로 이동 한다. 그곳의 임금은 한 상자를 채우는데 5센트였다. 물론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다. 그곳에서 Tom은 설교사 Casy와 마주치게 된다. Casy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저임금에 대항하여 파업을 지도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만 Hooper ranch에서의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거 보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소. 당신들은 어린애들을 굶어 죽게 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소.”(GW 386)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Casy의 마지막 말에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미지를 환기시킬 수 있다. Tom은 그 현장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상대방

의 곤봉을 빼앗아 복수를 한다. 그리고 지주 편에 매수된 보안관, 경찰들의 추격 때문에 숨어 지냈다. Tom은 Casy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 개인이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집단 활동 속에서 협동을 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민중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Tom은 Ma에게 “협동”의 필요성을 말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Joad 일가는 Tom을 짐 속에 숨겨 Hooper ranch을 떠나게 되고 목적지 없는 여정을 재차 나선다. 구사일생으로 그들은 유개차 캠프에 정착해 목화 따는 일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Al이 Wainwright의 딸 Aggie 와 결혼하면서 Wainwright 가족을 맞아들이며 또 하나의 공동사회를 형성한다. 자동차와 여자밖에 모르던 Al은 가는 곳마다 여자와의 추문을 뿌리고 다녔다. 그는 California 여정에서도 자립을 원했으며 가족과의 이탈을 원했다. 그러나 가족을 이끄는 트럭을 몰면서 그는 책임의식을 느꼈고 제 몫을 찾아 엄숙하게 발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Aggie Wainwright와 사랑으로 결합하면서 Al은 더욱 가족과의 결속력을 다진다. 심지어 어린 Ruthie마저도 어린애의 수준에서 동생에 대한 사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군것질을 하게 되면 늘 혼자서 차지하던 그녀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 국도로 나왔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꽃잎을 달라고 조르는 동생 Winfield에게 선뜻 꽃잎을 이마에 붙여준다.

온통 잿빛으로 물든 비가 한나절을 저녁처럼 바꾸어 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메말랐던 땅이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시커멓게 변했다. 이틀 동안 땅은 비를 실컷 들이마시면서 나중에는 땅속이 가득 찬 모양이었다.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기고 지대가 낮은 데서는 들과 밭에 작은 호수가 생겼다. 흙탕물이 만든 호수는 점점 넓어져 갔고 번들거리는 물위로 줄기차게 비가 퍼붓고 있었다. 홍수가 온 것이다. Joad 일가와 Wainwright 가족은 홍수로 인해서 일자리도 집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 와중에 Rose of Sharon의 진통이 시작된다. 그러나 Rose of Sharon의 아기는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사산 되어 버렸다. 이에 Wainwright 의

부인은 물신양면으로 그녀를 보살피 준다. 이때 Ma는 그의 딸이 출산하는 동안에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를 느끼며 “부인은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GW 445) 라고 말한다. 이에 Wainwright 부인은 이렇게 답한다.

The stout woman smiled. “No need to thank. Ever’body’s in the same wagon. S’pose we was down. You’d a give a han’.” “Yes,” Ma said, “we would.” “Or anybody.” “Or anybody. Use’ ta be the family was fust. It ain’t so now. It’s anybody. Worse off we get, the more we got to do.” (GW 445)

이제 Ma는 가족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된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사상을 더욱 확대 하고 있다.

한편 Uncle John은 임신 한지 4개월 된 그의 부인이 맹장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번 못쓰고 죽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다. 평소 Uncle John은 무사태평이고 낙천가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는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말 안하고 그저 빈둥빈둥 돌아다니기만 했다. 그리고 누군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매번 가서 의사를 끌고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도와 주려는 습성이 생겼다.

I kil’t her. An’ sence then I tried to make it up - mos’ly to kids. An’ I tried to be good, an’ I can’t. I get drunk, an I go wild.” (GW 224)

그는 Casy 에게 “나는 왜 그런지 내 집안사람들 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을 갖다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대로 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GW 224) 라고 말하며 스스로 키

워넨 죄의식에 사로잡혀 불편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힘든 여정을 Joad 일가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Rose of Sharon의 사산된 아기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비참했다. 그는 사산된 아기를 묻지 않고 강물에 띄워 보내며 독백을 한다.

“Go down an’ tell ’em. Go down in the street an’ rot an’ tell ’em that way. That’s the way you can talk. Don’ even know if you was a boy or a girl. Ain’t gonna find out. Go on down now, an’ lay in the street. Maybe they’ll know then.” He guided the box gently out into the current and let it go. (GW 448)

상자는 물속으로 낮게 흘러들더니 한쪽으로 기울며 빙그르르 돌고 나서 천천히 뒤집혔다. 보자기는 따로 물결에 씻겨내려 갔고 상자는 급류에 휘말려 삼시간에 떠 내려가더니 이내 수풀 뒤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독백 속에서 그는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모든 사람에게 고발하여 사회적 현실의 비참함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가 뭉치면 안 되는 상황을 알기에 무기력하게 있었던 Pa Joad도 큰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변화 되어 간다. Pa는 Grandpa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가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 비해 나약 했으며 의지 또한 강하지 못했다. Pa 에 대한 Tom의 평가에서 Pa의 성격을 알 수 있다.

“If he kills a chicken most of the squawkin’ will come from Pa, not the chicken. He don’t never learn. He’s always savin’ a pig for Christmus and then it dies in September of bloat or somepin so you can’t eat it.” (GW 30)

Ma의 역할이 커 갈수록 Pa의 대범함은 더욱 작아졌으며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위상도 작아 졌다. 그러나 Uncle John처럼 가족의 뒷전에서 맴돌던 Pa에게서도 중대한 변화가 온다. 물이 범람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제일 낮은 쪽으로 달려가서 진흙 속에 삽을 들이 밀었다. 그는 삽을 계속 놀리면서 독의 낮은 데에 흙을 퍼 부었다. 마침내 남자들은 혼신을 다해 제방 쌓기에 동참하여 한 남자가 삽을 내려놓으면 다른 남자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Pa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한다.

Pa laughed in triumph. "She'd come over if we hadn' a built up!" he cried.
The stream rose slowly up the side the new wall, and tore at the willow mat.
"Higher!" Pa cried. "We got to git her higher!" (GW 441)

“그것 봐. 우리가 독을 쌓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물바다가 되었을 거야.”(GW 441) 라는 말에서 아버지는 “나” 아닌 “우리”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으며 Casy가 부르짖었던 협동과 단결을 주도함으로써 정신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Joad 일가는 조그만 가족에서 더 큰 집단으로 동화 되면서 모두가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은 홍수를 피해 도착한 헛간에서 사내아이와 드러누워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 남자는 목화밭에서 병이 들어 엿새째나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딱딱한 음식 보다는 국물이나 우유가 필요했다. 이때 Ma와 Rose of Sharon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고는 이내 다른 가족을 내보낸 후, Rose of Sharon은 아사 직전의 그 낯선 남자에게 젖을 물리려 한다. 그 와중에도 그는 고개를 간신히 가로저으며 한사코 사양하지만, Rose of Sharon은 그에게 ‘먹어야한다’며 그를 다독인다.

For a minute Rose of Sharon sat still in the whispering barn. Then she hoisted her tired body up and drew the comfort about her. She moved slowly to the corner and stood looking down at the wasted face, into the wide, frightened eyes. Then slowly she lay down beside him. He shook his head slowly from side to side. Rose of Sharon loosened one side of the blanket and bared her breast. "You got to." She said. She squirmed closer and pulled his head close. (GW455)

굶주린 낯선 사람에게 젖을 물린 Rose of Sharon은 그의 목숨을 살린다. 이 젖은 한 생명을 살리는 최소한 그 순간의 굶주림은 면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 이 처럼 약속의 땅이라던 California의 '젖과 꿀'은 인간을 배반하였지만, 서로 도우면서 자신의 젖을 내놓는 인간의 '젖'은 공동체의 힘을 이루게 했다. Joad 일가는 물리적인 패배의 아픔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집단적 삶에서 성공을 이룩한 가족이 된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로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의 소유자들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Joad 일가의 사람들과 한때는 설교사였던 Jim Casy를 들 수 있다.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애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작품 속에서 휴머니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B. *The Grapes of Wrath* 주인공들의 공동체 의식의 전환

1. Ma Joad: 가족주의에서 박애주의

*The Grapes of Wrath*에서 거북이의 상징은 Oklahoma에서 California로 향하는 Joad 일가를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으며 불굴의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The Grapes of Wrath*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결단력 있는 생활력이 강한 인물이 바로 Ma이다. Ma는 몸이 육중했지만 뚱뚱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린애를 많이 낳고 고된 일만 하다 보니 몸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었다. 술이 많지 않은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살짝 묶여져 머리 뒤에 작은 매듭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규모가 있고 다정해 보였다. 달걀 색깔의 눈동자는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슬픈 사연을 다 겪어 이제는 온갖 고초와 시름을 디디고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듯한 조용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But better than joy was calm. Imperturbability could be depended upon. And from her great and humble position in the family she had taken dignity and a clean calm beauty. From her position as healer, her hands had grown sure and cool and quiet; from her position as arbiter she had become as remote and faultless in judgement as a goddess. (GW 74)

Ma는 식구들이 갈등 속에서 자기마저 흔들리면 집안이 붕괴될 것이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집안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Ma는 더욱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야만 했다. Pa가 나그네 두 사람이 와서 음식을 구걸한

다고 했을 때 그녀는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한 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침 먹을 건 넉넉해요. 손을 씻고 오라고 하세요. 빵도 다 됐고 이제 고기만 조금 더 구우면 돼요.”(GW 73) 라고 말하며 흔쾌히 승낙하였다. 타인에게도 인정을 베푸는 Ma의 모습에서 인간애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alifornia로 향하게 된 Joad 일가는 협소한 트럭 때문에 Casy 동행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진다. 이러한 결정들은 남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Ma는 Casy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I guess maybe we better not say till all the men come. John an’ Pa an’ Noah an’ Tom an’ Grampa an’ Al an’ Connie, They’re gonna figger soon’s they get back.” (GW 94)

이때 Pa가 “여보 그럴 수 있겠소?” 라고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이에 Ma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려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GW 102) 라고 단호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

“I never heerd tell of no Joads or no Hazeletts, neither, ever refusin’ food an’ shelter or a lift on the road to anybody that asked. They’s been mean Joads, but never that mean.” (GW 102)

Pa는 Ma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기분이 상했으며 조금은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Ma는 Casy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짐이 많아서 차의 고장을 의심하는 Al이 “저 설교사를 데리고 오

지 말 걸 그랬나 봐.”라고 말하자 Ma는 “목적지까지 다 가기도 전에 설교사를 데려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게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야.”(GW 124) 라고 말한다. Steinbeck은 이러한 Ma를 소설에 투영시킴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는 인간의 도리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신한 딸 Rose of Sharon이 노중에서 개가 치어 죽은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자 안정을 취하게 한다.

“You all right, Rosasharn?” she asked. “You feelin’ poorly?” “I heard ya yip,” said Ma. “Git yourself laced up, now.” “You suppose it might of hurt?” “No,” said Ma. “‘F you go to greasin’ yourself an’ feelin’ sorry, an’ tuckin’ yourself in a swalla’s nest, it might. Rise up now, an’ he’p me get Gramma comf’table. Forget that baby for a minute. He’ll take care a hisself.” (GW 131)

태아조차도 스스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서 Ma의 강인한 힘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Joad 일가는 California로 가는 도중 Wilson 부부와 만나게 되면서 Ma는 기존의 가족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의 전환점의 매개체가 된다. Joad 일가와 Wilson 부부는 한 부대를 이루며 서쪽으로 차를 몰았다. Rose of Sharon은 차의 요동에 버티면서 발에 힘을 주고 바닥을 디디고 앉아 몸뚱이를 앞으로 굽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윽고 그녀가 Ma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남편인 Connie와 자신은 시골 같은 곳에서 살기 싫으니 California까지 가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Ma는 “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다. 가족들이 흩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란다.”(GW 252)라고 말하며 가족의 단결성을 강조한다. Ma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떠나려고 할 때 사납게 항의한다. 그리고는 가족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한다. Tom이 남아서 고장 난 차를 고치고 그 동안에 식구들이 앞서가서 일자리를 잡아 돈을 벌자고 할 때 Pa는 동의 하지만 Ma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난 안 갈래요.”라고 말한다. 이에 Pa는 “이것 봐, 당신은 가야해. 우리가 다 결정을 한 거 아냐.”(GW 168)라고 말하자 그녀는 채크 손잡이를 꺼내 손에 가볍게 움켜쥐고 Pa에게 강하게 항의 한다. 강인한 인내와 삶의 의지를 지닌 그녀에게 유일한 것은 가족 밖에 없고 가족이 헤어지는 일은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The money we'd make wouldn't do no good," she said. "All we got is the family unbroke. Like a bunch a cows, when the lobos are ranging, stick all together. I ain't scared while we're all here, all that's alive, but I ain't gonna see us bust up. The wilsons here is with us, an' the preacher is with us. I can't say nothin' if they want to go, but I'm a-goin' cat-wild with this here piece a bar-arn if my own folks busts up." Her tone was cold and final. (GW 169-70)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Ma에게 집중되었다. Ma야말로 실권자가 된 셈이다. 이제 가족의 큰 문제를 결정 할 때는 모두가 Ma의 의견을 기다렸다.

그녀는 곧 가족의 구심력이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여신과 같은 초인성과 완전성을 느낀다.¹⁷⁾ 이렇게 강력한 Ma는 경찰들이 'Okies'의 정착을 막기 위해 Ma를 위협해도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프라이팬을 무기삼아 대항한다. 여성의 몸으로 약한 모습을 버리고 강인한 정신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17) 강봉식, 『스타인벡의 문학세계』 (서울: 고려 대학교출판부, 1978), p. 29.

California로의 여정에서 끈끈한 이웃의 정을 주고받았던 Joad 일가와 Wilson 부부는 헤어지게 되고 Ma는 그들에게 가족 이상의 것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준다. Joad 일가는 Wilson 부부와 헤어지고 California로 향하기 위해 Mojave 사막을 건너게 된다. 병든 Grandma를 모시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했다. 그 와중에 큰 아들 Noah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 혼자만의 여정을 위해 가족을 떠나게 된다. 이에 Ma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Ma는 초인적인 정신을 발휘한다. 가족 전체가 사막에서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Grandma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이에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Grandma의 죽음을 혼자 감당해 가면서 Grandma의 몸을 끌어안고 사막을 건널 때까지 가족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험난한 사막을 뚫고 있는 가족들이 와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만이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 냈다. 무사히 Joad 일가는 California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Ma는 눈을 들어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Grandma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다.

“I was afraid we wouldn’ get acrost,” she said. “I tol’ Granma we couldn’ he’p her. The fambly had ta get acrost. I tol’ her, tol’ her when she was a-dyin.’ We couldn’ stop in the desert. There was the young ones-an’ Rosasharn’s baby. I tol’ her.” She put up her hands and covered her face a moment. (GW 228)

가족들은 Ma를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무서울 수 있었던 상황을 여인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낸 것에 대해 Casy는 “저 부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비천하고 용기가 없지요.”(GW 229)라고 말하며 경탄해 한다.

Hooverville에 도착했을 때 Ma는 가족을 위해 스튜를 끓이게 된다. 이때 그 주변에 열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여 들게 되자 그녀는 가족들만 먹어도 모자라는 적은 양의 스튜를 그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이에 대해 스튜를 먹은 한 아이의 엄마가 스튜를 해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잘난 체 하는 처사라며 Ma에게 분노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때 Ma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That was 'bout the las' stew we're gonna have till we get work. S'pose you was cookin' a stew an' a bunch a little fellas stood aroun' moonin', what'd you do? We didn't have enough, but you can't keep it when they look at ya like that.” (GW 259)

이 말을 들은 한 아이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버린다. Ma는 자신 가족들만 배부르게 먹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푼 스튜는 단지 음식으로만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떠난 Connie를 그리워하는 Rose of Sharon에게 Ma는 힘을 북돋아 주면서 “너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식구들이 다 와있지 않니? 기운을 차려. 이리 오너라. 같이 감자나 벗겨라.”(GW 268)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 Rose of Sharon은 Ma의 엄한 눈길을 피하려 했으나 그 위엄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불가로 돌아왔다. Ma는 Rose of Sharon이 천막 속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어떤 일이라도 하도록 해서 Rose of Sharon의 공허감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Ma는 가족의 기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 Hooverville에서 경찰관 폭행사건에서 연루되어 Casy의 도움으로 피해 있는 Tom이 국영 캠프를 찾아 떠날 때 자신들이 멀리 받고 있는 입장을 한탄

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한다.

“You got to have patience. Why, Tom-us people will go on livin’ when all them people is gone. Why, Tom, we’re the people that live. They ain’t gonna wipe us out. Why, we’re the people - we go on.”

“Maybe that makes us tough. Rich fellas come up an’ they die, an’ their kids ain’t no good, an’ they die out. But, Tom, we keep a-comin’. Don’ you fret none, Tom. A different time’s comin’.” (GW 280)

부자는 세상에 나왔다가 곧 죽어버리고 그 자손들도 변변찮아서 그냥 거기서 끊어지고 말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강인하게 말을 한다. 또한 Ma는 ‘Okies’ 라는 비난과 모욕을 받지만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진다. 그녀는 “우리는 Joad 집안이다. 우리가 벌벌 떠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할아버지도 보아라. 독립전쟁에도 당당히 참가 하셨잖나?”(GW 307)라고 말하며 그들이 지켜 온 전통과 농부로 살아온 삶에 자부심을 내보였다. 그러나 Noah가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망연자실 한다.

Ma was silent a long time. “Family’s fallin’ apart,” she said. “I don’t know. Seems like I can’t think no more. I jus’ can’t think. They’s too much.” (GW 216)

Tom이 Ma를 진정 시켜 보지만 어머니는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못하겠다.”(GW 216)고 말하며 정신 나간 것처럼 시선을 강 쪽으로 돌렸다. 가족의 이탈만은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어머니이기에 Noah와의 헤어짐은 굉장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나머지 가족을 위해 여정을 계속한다. 험난한 과정에

서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다. Joad 일가가 국영 캠프인 Weedpatch Camp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다. 이에 Ma는 Rose of Sharon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An' now I ain't ashamed. These folks is our folks - is our folks. An' that manager, he come an' set an' drank coffee, an' he says, 'Mrs. Joad' this, an' 'Mrs. Joad' that-an' 'How you gettin' on, Mrs. Joad?'" She stopped and sighed. "Why, I feel like people again." (GW 307)

Ma는 가족들로 하여금 “인제 우리 가족들도 좀 체면을 차려야지요.”(GW 303)라고 말하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이제 어머니는 Joad 일가의 남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당당함을 보였다. 이 캠프에서 Lisbeth Sandry란 여자가 Weedpatch Camp에서 벌이는 댄스파티가 죄라며 그것을 보게 되는 Rose of Sharon의 아기가 유산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한다. 이에 Rose of Sharon과는 달리 Ma는 “또 한 번만 오면 그때에는 정말 때려 줄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 딸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GW 321)라고 강하게 말하며 그녀를 내쫓는다. Ma는 이 여자를 때릴 생각은 없었다. 단지 외부의 침입, 해침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다. Ma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동과 같았다. Ma는 그녀의 Weedpatch Camp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변변한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자 Ma는 제일 먼저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다. 그녀는 Winfield를 가리키며 “저 애 좀 보세요.”, “자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몸을 뒤틀어요. 저 얼굴색 좀 보세요.”(GW 350) 가족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 바닥만 쳐다보았다. Ma의 목소리는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Fried dough,” Ma said. “One month we been here. An’ Tom had five days’ work. An’ the rest of you scrabblin’ out ever’ day, an’ no work. An’ scairt to talk. An’ the money gone. You’re scairt to talk it out. Ever’ night you jus’ eat, an’ then you get wanderin’ away. Can’t bear to talk it out. Well, you got to. Rosasharn ain’t far from hue, an’ lookut her color. You got to talk it out. Now don’t none of you get up till we figger somepin out. One day’ more grease an’ two days’ flour, an’ ten potatoes. You set here an’ get busy!” (GW 350)

그러나 Tom은 Ma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Ma는 “너부터 그렇게 낙심해서 어떻게 하니? 가족들이 모두 쓰러지게 된 판에 아무도 낙심해 버릴 권리는 없다.”(GW 351) 라고 사납게 말을 한다. Pa는 깎은 손톱을 살펴보면서 아쉽지만 Hooverville로 이동하자고 한다. Ma는 아무리 살기가 좋은 국영캠프일지라도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필요를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집안의 결정권이 Ma에게로 넘어갔음을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Ma는 이제 가족의 대들보로써 자리매김을 하였다. Joad 일가는 가까스로 Hooper ranch에서 복숭아를 따는 일을 시작한다. 그곳은 Weedpatch Camp와는 달리 굉장히 협소했다. Ma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바닥에는 식용유가 버려져 있었고 단칸방 속에 녹슨 양철 스토브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지만 이에 Ma는 “여기는 그래도 방바닥이 있잖니? 여기는 비가와도 새지는 않는다.”(GW 369) 라고 말하며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다. 또한 Pa가 떠돌아다니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하자 Ma는 달래듯 이렇게 말을 하였다. “We ain’t gonna die out. People is goin’ on - changin’ a little, maybe, but goin’ right on.”(GW 423) 남자가 모르는 여자들의 인생을 말하며 내년쯤에는 정착

해서 살 만한 데를 얻게 될 거라고 그를 위로하며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이렇듯 그녀는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원천이며 현실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Ma는 이제 Wilson 부부에게도 그랬고 Hooverville 아이들에게도 그랬듯이 모성애 이상의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확대시킨다. 항상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해오던 어머니는 이제 타인에게로 애정을 확대시킨다. Ma는 Hooper ranch 매점에서 점원에게 인간의 참다운 진실과 인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I’m learnin’ one thing good,” she said. “Learnin’ it all a time, ever’ day. If you’re in trouble or hurt or need - go to poor people. They’re the only ones that’ll help - the only one.” (GW 376)

비록 자신들이 대지주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존재이긴 하나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이 그 현실을 잘 이해하기에 Ma는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난한 이웃을 찾으라고 한다. Ma는 이제 Casy가 말했던 ‘사해동포개념 사상’인 박애주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Ma는 유개화차 안에서 Wainwright 부인이 Rose of Sharon의 분만을 도와 줬을 때 더 큰 동포애를 느끼게 된다. Ma는 전에는 자기 집안을 먼저 생각 했지만 요새는 더욱 서로 돕는다고 말하며 한 단계 더 성숙된 의식의 성장을 보여 준다. 특히 Ma의 이러한 동포애는 헛간에서 최고 절정을 이르게 된다. Ma는 아사 직전의 남자를 보고 딸 Rose of Sharon에게 눈짓을 보내 젖을 먹이게 한다. 이러한 Ma의 모습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알게 하고 인간 자체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휴머니즘적인 사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다.

Steinbeck은 Ma를 통하여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여성상을 그려 냈다. Ma는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이끌었으며 가족에서부터 시작한 사랑을 이웃을 향

한 사랑으로 더욱 확대 시켜 더 큰 공동체 집단을 만들었다.

2. Rose of Sharon: 자기중심에서 형제애

Rose of Sharon은 Joad 일가 중 가장 연약하고 감상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는 생각과 행동 전부가 뱃속의 아기와 남편 Connie 에게로만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라서 몹시 조심하고 있었다. 머리꼭지에서 땀아들들 말아 싸고 있는 그녀의 머리는 잿빛이 살짝 섞인 금발이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육감적이고 풍만했던 그녀의 부드럽고 둥근 얼굴은 이제 입덧하는 티를 감추지 못했고, 어딘지 여유 있어 보이는 미소와 완전히 무르익은 부인다운 표정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완연했다.

Her whole thought and action were directed inward on the baby. She balanced on her toes now, for the baby's sake. And the world was pregnant to her; she thought only in terms of reproduction and of motherhood. (GW 95)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들의 주위에 바싹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으며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들의 틀에 맞춰 생각 하고 꿈을 이야기 했다.

She looked at him and smiled secretly. She was all secrets now she was pregnant, secrets and little silences that seemed to have meanings. She pleased with herself, and she complained about things that didn't really matter. And she demanded services of Connie that were silly, and both of them knew they were silly. (GW 129)

또한 Rose of Sharon은 California로 이주하는 도중 개가 치여 죽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했으며 Grandpa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기 보다는 아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Ma와 Wilson 부인의 위로에도 아기 걱정 뿐 이었다. Joad 일가가 생존을 위협 당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도 그녀는 이러한 불안한 생각과는 달리 남편과 자신들의 미래 계획을 세우며 환상적인 꿈만 꾸다.

“Connie gonna get a job in a store or maybe a fact’ry. An’ he’s gonna study at home, maybe radio, so he can git to be a expert an’ maybe later have his own store. An’ we’ll go to pitchers whenever. An’ Connie says I’m gonna have a doctor when the baby’s born; an’ he says we’ll see how times is, an’ maybe I’ll go to a hospiddle. An’ we’ll have a car, little car. An’ after he studies at night, why - it’ll be nice. (GW 164)

Rose of Sharon은 현실 속 고통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겪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철부지 여성 일 뿐 이었다. 이에 Pa는 “Rose of Sharon은 임신을 하더니 되게도 별별 떨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구나.”(GW 192) 라고 말하며 다소 불만스럽게 말을 하였다. 해가 꼴깍 넘어가면서 하늘에 커다란 후광을 남겼다. 천막 밑은 아주 깜깜 해졌다. 양쪽 끝에만 빛이 드는 동굴이 되어 버렸다. 평면 삼각형의 빛 이었다. Connie와 Rose of Sharon은 운전대 뒷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In the dusk his hand moved out and stroked her hip. She said, “Don’t. You’ll make me crazy as a loon. Don’t do that.” And she turned her head to hear his response. “Maybe – when ever’body’s asleep.” “Maybe,” she said. “But wait till they get to sleep. You’ll make me crazy, an’ maybe they won’t get to sleep.” “I can’t hardly stop.” he said. “I know. Me neither. Let’s talk about when we get there. (GW 223)

사막을 건너는 트럭 위에서, Grandma가 죽어가고 있건만, 그것도 모르고 Rose of Sharon은 남편 Connie와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며 이상향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러나 Connie는 그가 처한 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Joad 일가와 헤어지면서 Rose of Sharon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만 부린다.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녀는 자기 스스로 삶을 지켜나가는 결단력 또한 약하다. 국영 캠프에서 Lisbeth Sandry가 위협적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욱이 사람을 죽이고 피신한 Tom에게 자신은 온전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며 불평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다.(GW 393) 그녀는 가족이 모두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과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나 Rose of Sharon은 아프고 외롭다. 남편 Connie에게 아기와 함께 버림 받았으며 아기를 위해 해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더욱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Ma는 이러한 Rose of Sharon을 어루만져주며 그녀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다. 남동생 Al이 Aggie와 결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준비와 마음을 다지게 된다. Rose of Sharon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개울을 향해 아까 Ma가 가던 길로 해서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바람은 이제 계속 불었고 나뭇잎들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Rose of Sharon went down on her knees and crawled deep into the brush. The berry vines cut her face and pulled at her hair, but she didn't mind. Only when she felt the bushes touching her all over did she stop. She stretched out on her back. And she felt the weight of the baby inside of her. (GW 425)

의지력이 약하고 이기적 이었던 그녀는 이러한 상징적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한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Ma에게 가족과 함께 목화를 따러 가겠다고 말한다.

"I'm a-goin' out," Rose of Sharon said. "Out where?" "Goin' out to pick cotton." "You can't," Ma said. "You're too far along." "No. I ain't. An' I'm a-goin'." (GW 426)

그녀는 자기중심 사상에서 벗어나 Casy의 형제애 사상을 실천하며 가족과 협동을 하게 된다. Rose of Sharon은 이제 '나'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로의 생각 전환을 하게 된다. 홍수가 오던 날, Rose of Sharon은 이웃 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진통 속에서 분만을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죽어있었다. 그녀는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슬픔과 가혹한 비극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의 순간에 홍수를 피해 들어간 헛간에서 아사 직전의 남자와 만나게 되자 생명의 상징이자 어머니의 상징인 젖을 물리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다.

Her hand moved behind his head and supported it. Her fingers moved gently in his hair. She looked up and across the barn, and her lips came together and smiled mysteriously. (GW 455)

이제 그녀도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애의 공동체적인 사상을 받아들인다. 항상 말괄량이 소녀로 인식 되었던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사산되었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으로 인류애의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 그녀는 아사 직전의 남자에게 생명의 젖을 물리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 모습은 1930년대의 공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줄기였다.

3. Tom Joad: ‘나’에서 ‘우리’로의 공동체 의식

Tom은 이 작품에서 의식의 변화를 가장 많이 하며 Casy의 사상과 행동을 이어 받아 그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인 Tom Joad는 술을 마시고 과실로 인해 Herb Turnbull을 죽이고 살인 혐의로 맥 McAlester 형무소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범수로서 4년 만에 그 형을 마치게 된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오점ियो, 흠일 것이다. 그러나 Tom에게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라든지 수치심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Casy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자네는 아무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GW 25)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 한다.

“No,” said Joad. “I ain’t. I got seven years, account of he had a knife in me. Got out in four-parole.” (GW 25)

또한 그는 Muley가 형무소의 생활을 물어 봤을 때도 “무언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런 데로 들어온 사람은 좀 반성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Herb Turnbull 녀석이 칼을 들고 나한테 대든다면 같은 삽으로 또 한 번 대가리를 부숴 버릴 거야.”(GW 54) 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당당히 하는 인물로서 참을성이 없어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 이다. 그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복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중 그를 태워 준 운전사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Joad laughed at him. “You been a good guy. You give me a lift. Well, hell! I done time. So what! You want to know what I done time for, don’t you?” “That ain’t none of my affair.” “Nothin’ ain’t none of your affair except skinnin’ this here bull-bitch along, an’ that’s the least thing you work at.” (GW 12)

또한 그는 Casy처럼 설교와 사색으로 다져진 사상의 힘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부를 향해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Casy가 “California에 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GW 173) 라고 근심스럽게 말하자, 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How’d I know? I’m jus’ puttin’ one foot in front a the other. I done it at Mac for four years, Jus’ marchin’ in cell an’ out cell an’ in mess an’ out mess. Jesus Christ, I thought it’d be somepin different when I come out! Couldn’t think a nothin’ in there, else you go stair happy, an’ now can’t think a nothin’.” (GW 173)

Tom은 자기생각밖에 없는 이기주의자이자 목적의식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한 젊은이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떠나는 California 행을 택한다. 참을성 없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Tom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대담함도 보였다. Tom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얻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Donald Pizer의 말과 같이 Tom은 “자연인의 상징”¹⁸⁾이며, 치밀한 계획한 계획보단 삶을 그때그때 닥쳐서 살아간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땐 출소 할 날 만을 기다리는 일 밖에 없었기에 앞날을 생각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California에 대해 불확실한 앞날을 걱정하는 Ma를 위로 해주기도 했다.

“Look, Ma, stop your worryin’. I’m a-gonna tell you somepin about bein’ in the pen. You can’t go thinkin’ when you’re gonna be out. You’d go nuts. You got to think about that day, an’ then the nex’ day, about the ball game Sat’dy. That’s what you got to do. Ol’ timers does that. A new young fella gets buttin’ his head on the cell door. He’s thinkin’ how long it’s gonna be. Whyn’t you do that? Jus’ take ever’ day.” (GW 91)

Ma가 가족의 정신적 지주라면 Tom은 가족의 이동을 이끌어 가는 인물로써 California행을 돕는다. 그는 트럭을 고치고, Uncle John을 찾아오기도 한다. 그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타인은 생각 하게 되는 의식의 전환을 갖게 되며 Connie 나 Noah처럼 가족을 이탈하기 보다는 역경 속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성숙된 인간이 된다. Tom은 “감옥에 있으면 말이에요, 무어라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을 감각이나 눈치 같은 것으로 알게 되지요.”(GW 251) 라고 하며 상황을 감지하는 예민함

18) Pizer Donald. *The Enduring Power of the Joads.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pp. 83-98.

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다. Wilson 부부와의 만남에서 Tom은 ‘나’에서 ‘우리’로의 공동체의 인식을 갖게 되고 형제애로의 결속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냉소적이고 배타적 이었던 Tom은 Casy가 자신을 위해 대신 보안관에 잡혀 가자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에 Howard Levant는 Tom이 도덕적 의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is moral development follows Casy's, with the significant difference that his is the more difficult to achieve. Casy is a relatively simple characters; he can express moral concern easily. Tom's emotional numbness following his time in prison does not emit meditation or cancel personality, so the awakening of his moral consciousness on the road is a more rigorous, more painful experience than Casy's time in the desert.¹⁹⁾

Tom은 가족과 함께 California의 임시 야영소인 Hooverville 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Tom은 왜 California 농장주들이 전단을 많이 뿌려 수많은 사람들을 California로 오게 하였는지 그 진실을 깨달지 못한다.

“Well, s'pose them people got together an' says, 'Let 'em rot.' Wouldn't be long 'fore the price up went up, by God!” The young man looked up from the valves, looked sardonically at Tom. “Well, you figgered out somepin, didn't you. Come right outa your own head.” “I'm tar'd,” said Tom. “Drove all night. I don't wanta start no argument. An' I'm so goddamn tar'd I'd argue easy. Don't be smart with me. I'm askin' you.” (GW 247)

19) Levant, Howard.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A Critical Study*.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Press, 1974), pp. 113-14.

그러나 Tom의 생각에도 전환점을 갖는다. Tom이 만난 Floyd가 이곳 캠프로 일꾼들을 구하러 온 계약자에게 정확한 임금 액수와 인원수, 그리고 허가증을 요구하자 그들은 Floyd에게 말썽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처럼 말하고 있다며 체포하려 한다. 위험을 느낀 Floyd가 도망치자 그들은 총을 쏘고, 이 총에 맞아 천막 안에 있던 한 여자의 손이 떨어져 나간다.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길이 없는 이 주민들의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Tom은 자신들 같이 ‘Okies’ 노동자들에게 부리는 억압과 횡포에 대해 점차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해 한다. 이에 Floyd는 Joad 일가에게 국영 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은 국영 캠프인 Weedpatch Camp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도 권력의 횡포로 인해 고정된 일자리는 없고 조합의 횡포와 노동자의 대립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Joad 일가는 Weedpatch Camp를 떠나 Hooper ranch로 이동하게 된다. 이곳에서 Tom은 Casy와 재회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상황에서 Tom은 Casy의 사상에 동화되지만 Casy의 파업요청에는 뒷걸음친다.

“We was outa food,” Tom said. “Tonight we had meat. Not much, but we had it. Think Pa’s gonna give up his meat on account a other fellas? An’ Rosasharn oughta get milk. Think Ma’s gonna wanta starve that baby jus’ ’cause a bunch a fellas is yellin’ outside a gate?” (GW 384)

이에 Casy가 “다들 사정을 좀 냉정하게 알았으면 좋겠네.”(GW 384) 라고 말하지만,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Tom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Casy의 죽음을 목격하고 Tom에게도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 그는 Casy를 죽인 보안관을 살해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숨어 지내게 된다. Tom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숨어 있는 동안에도 Casy를 생각하며 자신이 길이 무엇인지 깨달게 된다. 또한 가족에게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그의 정신적인 변화에서 처음의 거칠고 배타적인 성격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Casy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Casy의 동포애적인 사상과 형제애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Ma에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같아요.”(GW 418) 라고 말하며 Casy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다.

“Goes,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ward for their labor. For if they fall, the one will lif’ up his fellow, but woe to him that is alone when he falleth, for he hath not another to help him up.” (GW 418)

Tom은 인간은 집단으로 뭉쳐야만 살 수 있다는 Casy의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며 그의 사상을 각인 시킨다. Ma가 “너는 무얼 할 생각이니?” 라고 질문하자 톰은 “케이시가 하던 그런 일을 하겠어요.”(GW 419) 라고 답한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Tom은 “어머니가 찾으시는 곳에는 아무 데나 가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곳에는 어디든지 가 있겠어요.”(GW 420) 라고 말하면서 “Casy가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분노에 못 이겨 미쳐 날뛰며 고향을 치는 그런 데에 나는 가 있을 거예요”(GW 419) 라고 말하며 Casy의 생각과 합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Casy의 영적인 제자가 된다. 처음에는 Ma의 권유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했던 틀을 깨고 타인을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범위로 그의 범주를 넓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추구하며 동포애적인 사상을 실천해 나간다.

4. Jim Casy: 신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

Steinbeck은 Jim Casy를 통하여 인간의 존재와 생명 그리고 존엄성을 강조하며 협동정신과 동포애를 강조하고 있다. Casy는 Joad일가의 행동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고 있으며 사랑과 이해는 인간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Casy의 모습은 19세기 작가 Ralph Waldo Emerson이 주창한 초절주의 사상이 뿌리박힌 종교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Emerson은 자연의 가장 미소한 것조차도 그 자체의 존재 법칙과 의미를 갖는 소우주로 보고 자연을 섬기었고 배웠다.

We live in succession, in division, in parts, in particulars. Meantime within man is the soul of the whole; the wise silence; the universal beauty, to which every part and particle is equally related; the eternal one. 20)

The Grapes of Wrath 는 Casy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에 궁극적인 가치를 둬으로써 개인 자신의 노력을 통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신념은 곧 공동체 의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다음 구절은 Tom과 대화를 나누면서 Casy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 figgered about the Holy Sperit and the Jesus road. I figgered, ‘ Why do we got to hang it on God or Jesus? Maybe, ‘ I figgered, ‘maybe it’s all men an’ all

20) Ralph Waldo Emerson, “Nature” in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eds. Sculley Bradley, et al. (New York: Norton, 1962), p. 579.

women we love; maybe that's the Holy Sperit - the human sperit - the whole shebang. (GW 24)

The Grapes of Wrath 는 Casy의 모습에서 비 목적론적 사상과 초절주의 사상을 이끌면서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자 했다. Casy는 전직 목사였다. 그는 스스로 성직을 버린, 타락한 목사였지만 소설의 첫 등장은 ‘예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나타난다.

“Yes, sir, that's my Saviour, Je-sus is my Saviour, Je-sus is my Saviour now.
On the level 'S not the devil, Jesus is my Saviour now.” (GW 19)

Tom에게 세례를 주었던 Casy는 “이제는 그저 Jim Casy에 불과해. 목사니 설교사니 하는 따위의 칭호는 이제 없어졌지.”(GW 20)라 말하며 전직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때 많은 신도들이 따랐던 목사였지만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에 자책을 하고 있었으며 종교적 집회와 세례, 성령을 자신 마음대로 도용한 과거가 있었다. 그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인간을 속박하는 종교적 허구를 극복하였으며 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기에 설교자 직을 그만두고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 Casy는 집으로 향하는 Tom과 우연히 만나 “사람들이 길바닥에 있으면 나도 그들과 같이 길바닥에 있어야지.”(GW 56)라고 말하며 California로 향하는 Joad 일가와 합류하게 된다. Casy는 더 이상 설교사는 아니지만 Grandma 의 재촉으로 인해 아침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Casy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속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때야 말로 신성한 것”(GW 81) 이라 말하며 자신이 산 속을 헤매면서 느꼈던 신비한 경험을 Joad 일가에게 말해준다. Casy는 그의 영혼을 구하고자 Oklahoma 황야를 방황하였고, 거기에서 자연과의 종교

적 일체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곧 자연과의 합일이 바로 신성이라는 Emerson의 사상인 초절주의를 의미한다. 이에 Frederic I. Carpenter는 “Casy를 통해 나타나는 초절주의는 모호하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만을 위하면 통일성이나 자연의 신성함을 파괴 한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온다.”²¹⁾라고 했다. Casy는 이주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면서 민중들의 힘을 믿었고 단체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 했다.

“Movin’ cause they want somepin better’n what they got. An’ that’s the on’y way they’ll ever git it. Whatin’ it an’ needin’ it, they’ll go out an’ git it. It’s bein’ hurt that makes folks mad to fightin’. I been walkin’ aroun’ the country, an’ hearin’ folks talk like you.” (GW 128)

이에 Steinbeck은 “모든 학설과 이론이 변화하고 상충할 때에도, 모든 학파들이, 모든 학문들이, 그리고 국가적, 종교적, 경제적 사상의 좁다란 흐름이 성장했다가는 다시 해체될 때에도 인간은 다시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때로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결코 한 발짝을 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반 발짝씩을 후퇴한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에 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GW 150) 라고 정의 한다. 이렇듯 Steinbeck은 인간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존재임을 Casy의 사상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 이는 곧 환경적, 제도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전진해 나가는 Joad 일가와 닮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Casy는 민중을 대신하면서 그들의 지도자

21) Carpenter, Frederic I. The Philosophical Joads., Peter Lisca (ed).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Books, 1981), p. 710.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Grandpa가 사망 후 자신만의 종교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This here ol’ man jus’ lived a life an’ jus’ died out of it. I don’t know whether he was good or bad, but that don’t matter much. He was alive, an’ that’s what matters. An’ know he’s dead, an’ that don’t matter. Heard a fella tell a poem one time, an’ he says ‘All that lives is holy.’ Got to thinkin’, an’ purty soon it means more than the words says. (GW 144)

Casy는 단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신성하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GW 144) 라며 자신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은연 중에 표현한다. 이주민들과 같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새겨 보고 고통에 힘겨워 하는 민중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돕기 바라는 그에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다. 바로 이때 Sairy Wilson의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된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Wilson 부부에게서 Casy는 인간애를 느낀다. 이러한 Casy의 신념이 Joad 일가와 나아가서는 이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인식된다. Casy는 Floyd와 노동자를 모집하러 온 청부업자와의 싸움에서 Tom이 가담되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 이로 인해 Casy는 삶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된다. Hooverville에서 Tom과 만나게 되는 Casy는 임금인하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지도자가 되어있었고 사상가이기 보다는 실천가로 변모해 있었다. Casy는 Tom에게 “그런데 내가 무얼 깨닫게 된 것은 감옥 속이었어.”(GW 381) 라고 말하며 감옥에서 깨달은 바를 말해준다.

“An’ I begin to see, then. It’s need that makes all the trouble. I ain’t got it worked out. Well, one day they give us some beans that was sour. One fella stated yellin’, an’ nothin’ happened. He yelled his head off. Trusty come along an’ looked in an’ went on. Then another fella yelled. Well, sir, then we all got yellin’. And we all got on the same tone, an; I tell ya, it jus’ seemed like that tank bulged an’ give and swelled up. By God! Then somepin happened! They come a-runnin’, and they give us some other stuff to eat – give it to use.” (GW 382)

Casy는 감옥에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게 된다. 감옥에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훔치고 잡혀 들어온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 훔친 물건은 대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훔칠 수밖에는 달리 손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조용하게 요구하면 간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여러 명이 떠들어 대니 요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Casy는 사회개혁에 앞장을 선다. 광야에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 짓눌려 왔던 분노를 내보이면서 운동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Joseph Fontenrose는 Casy의 사상의 변화에 대해 “California 감옥에서 그의 교리는 사회적 복음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농장노동자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²²⁾ 라고 본다. 그는 불합리한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해 경찰과 대치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고 비탄에 빠진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Casy는 2센트 밖에 안 되는 임금으로 복숭아 1톤을 따서 운반해도 겨우 1달러가 된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거침없이 자신의 계획을 Tom에게 실천할

22) Fontenrose, Joseph. “The Grapes of Wrath.” Peter Lisca (ed),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p. 796.

것을 강요한다.

“I tol’ you. Cops cause more trouble than they stop. Look, Tom. Try an’ get the folks in there to come on out. They can do it in a couple days. Them peaches is ripe. Tell ’em.” (GW 384)

그러나 Tom은 현실적인 장벽을 말하며 Casy의 말을 거절한다. 이에 Casy는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준다.

“This fella in jail, he says, ‘Anyways, you do what you can. An’,’ he says, ‘the on’y thing you got to look at is that ever’ time they’s a little step fo’ward, she may slip back a little, but she never slips clear back. You can prove that,’ he says, ‘an’ that makes the whole thing right. An’ that means they wasn’t no waste even if it seemed like they was.’” (GW 384)

Casy는 비록 현실의 장벽은 높을 지라도 계속 전진하면 그릇된 폐해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회개혁 실천은 파업을 반대하는 일당에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막을 내린다. 그는 죽기 전 까지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생각 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 할 사람 Tom을 남겨 놓는다. Casy는 Tom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휴머니즘 사상에 입각한 사랑을 몸소 실천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알렸다. Eric E. Carlson은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의 죽음이 의미심장한 것은 인간을 사랑한 것을 지시한 것이고, 그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한 사랑이다.”²³⁾ 라고 말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Steinbeck의 휴머니즘적 사상에 입각하여 *The Grapes of Wrath*에 나타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애와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본질적인 휴머니즘 사상을 짚어보았다.

*The Grapes of Wrath*는 1930년대의 대 공황과 자연재해로 인한 비참한 삶의 사실을 소재로 하여 탄생하였다. 이 소설의 구성은 가뭄과 자본가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후 California로 긴 여정을 떠나는 Joad 일가의 삶을 소재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 생각했던 땅 California는 Joad 일가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주민이란 천대를 받으며 굶주리고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자본가들의 횡포에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에도 Joad 일가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이러한 모습을 Steinbeck은 거북이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Joad 일가는 끊임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곳곳하게 공동체 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범 인류애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Joad 일가는 거북의 묘사에서 예시되어 있듯이 California로 가는 도중에 당하는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여정을 계속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California에 이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큰 아들 Noah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고 도중에 떠난다. Connie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이 Joad 일가를 더욱 강하고 정신적으로 성숙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신적 발전은 다른 가족과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23) Carlson, Eric W. "Symbolism in *The Grapes of Wrath*." Peter Lisca (ed),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p. 752.

California로 가는 도중에 Wilson 부부와는 돈과 음식을 나누고, 유개화차 캠프에서 만난 Wainwright 가족과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Joad 일가는 자신들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경험을 통해 집단 휴머니즘에 이르는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Joad 일가 중 가장 강인하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Ma이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에 국한된 어머니가 아니라 인류애에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Ma는 가족들의 정신적인 기둥이면서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다. Ma는 처음에 가족 본위만을 중시하였으나 이주 과정에서 이웃들을 생각하며 확장된 사랑으로 공동체적 의식을 발휘한다.

Ma의 이러한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Rose of Sharon이다. 그녀는 작품 전반에 의지가 유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는 사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면서 인간적 성숙의 과정을 거친다. Rose of Sharon은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인 남자에게 젖을 물림으로써 인간 본연의 의식을 깨닫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어머니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Rose of Sharon의 행동은 ‘살과 피’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한 것이며 이는 바로 인간애의 실천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전직이 목사였던 Casy는 성직자의 길을 거부하고 실제 민중들의 삶에 뛰어들어 형제애와 인간애를 실천한다.

Casy는 Emerson의 사상을 받들어 인간은 모두 하나의 큰 영혼 속에 있으므로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Casy는 실제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로써 인간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존엄성을 갖도록 해준다. Steinbeck은 Casy를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간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생존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협동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Tom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된 결점이 있는 인물이다. 처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거

친 성격을 드러내면서 자기 본위의 삶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Casy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도 전환점을 갖게 된다. Tom은 Casy의 사상을 본받아 억압 받고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한다. Steinbeck은 궁지에 몰린 이주민들이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는다. 대신 그는 궁핍한 삶과 역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유대와 인류동포애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현실의 상황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사상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요컨대, Steinbeck은 *The Grapes of Wrath*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인간애의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우리들로 하여금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면 개인과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 해준 점이 결국 Steinbeck이 나타내고자 했던 공동체적 휴머니즘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식. 『스타인벡의 문학세계』. 서울: 고려 대학교출판부, 1978.
- 김이철. 『John Steinbeck』. 서울: 형설 출판사, 1992.
- 이미영.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생의 의지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2007.
- 정정숙. 「존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에 나타난 휴머니즘과 아메리칸 드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조철원.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벡의 공동체 의식」. 『안과 밖』. 서울: 영미문학 연구회. 1998.
- 최예자. 「John Steinbeck 의 비목적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1991.
- 최한용. 「분노의 포도 : 결말의 미학」. 한국영어영문학회 광주.전남 지회, 1997.
- 현대 영미 소설 학회, 『20세기 미국 소설의 이해 I』. 서울; 신아사, 2003.
- 한국영어영문학회편, 『영·미작품론』. 서울; 신구.문화사, 1981.
- Blak, Nelson Manfred. *Novelists' America: Fiction as History. 1910-1940*.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6.
- Bradley, Scualley. *et al.* eds.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Vol. 2.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1967.
- Champney, Freeman. "John Steinbeck, Californian." *Steinbeck: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Murry Davi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 Donald, Pizer. "The Enduring Power of the Joads."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 Emerson, Ralph Waldo. "Nature."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eds. Sculley Bradley, *et al.* New York: Norton, 1962.
- Levant, Howard.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A critical Study*.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Press, 1947.
- Lisca, Piter.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8.
- _____, ed.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Books, 1981.
-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Boston: Twayne Publishers, 1975.
- Steinbeck, John.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Penguin Books, 2002.
- _____. *Working Days: The Journals of The Grapes of Wrath, 1938-1941*, Robert Demott ed. New York: Viking Press, 1989.

